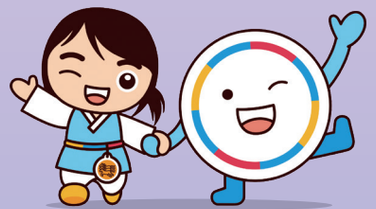
국민콜 110(정부민원안내)
부패·공익침해신고 상담 1398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1600-8172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www.acrc.go.kr
청렴포털 www.clean.go.kr



더 청렴하게
더 국민 곁으로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

국민의 권익을 높이는 ACRC

WINTER
2021. Vol 71

LOOK UP

우리는 찾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한 길을.

청백이 권익이

국민권익위원회

WINTER 2021
vol. 71

표 지 이 야 기

2021 <국민권익>은 '변화의 스위치를 켜다'는 주제로 새로운 삶의 방식에 적응하며 더 청렴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이 시대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발행일 2021년 12월 23일
발행처 국민권익위원회
발행인 전현희
편집인 허재우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2동(우 30102)
전화 044-200-7081
팩스 044-200-7911
홈페이지 www.acrc.go.kr
블로그 blog.naver.com/loveacrc
트위터 twiter.com/loveacrc
페이스북 www.facebook/loveacrc
기획·디자인·인쇄 더에이치(주) 031-247-5141

변화를 만드는 우리

04
권익은 지금
국민생각함 아이디어 공모전 우수사례 시상식 개최

08
권익, 삶을 말하다
세계 반부패의 날 (12. 9.) 맞이해
국민이 참여하는 다양한 청렴 문화행사 열려

12
ACRC News
국민권익위 주요 소식

16
권익 빅데이터
빅데이터로 보는 국민의 소리

20
이 달의 키워드
한파

함께 나누는 이야기

22
세상을 읽다
OTT 플랫폼의 전성시대
'집콕러'를 위한 방국석 라이프

26
권익비전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도 시행 100일, 66건 개선 권고

30
권익 포커스
국민의 곁에서 언제나 ON

34
권익 바로세우기
권익이, 달라집니다!

국민권익 더하기

38
청백이와 권익이
본인에게 부과된 과세정보?
'공개' 해야~!

40
그들이 사는 세상
국민권익위원회 캐릭터
"청백이와 권익이"를 소개합니다

44
시간을 걷다
담양 눈길 산책 물과 볕, 푸른 대나무, 그리고 함박눈

50
청렴한 수기
2020 국민참여 청렴콘텐츠 공모전 수기 부문 장려상

56
국민 생각함
국민의 생각이 정책이 됩니다

58
#권익
독자의 소리 / 권익위 열독왕

국민생각함 아이디어 공모전 우수사례 시상식 개최

시민의 힘으로 공공의 문제를 직접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
국민생각함 아이디어 공모전 우수사례 시상식이 지난 11월 24일 개최됐다.
MZ세대라 불리우는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모집된 공공문제 해결 아이디어를 통해 앞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나갈 세대들의 생각을 엿볼 수 있는 기회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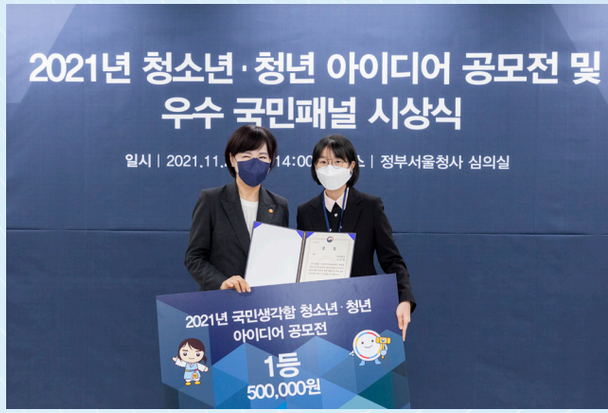
Writer. 편집실 **Photo.** 주효상

우리 힘으로 제안한 정책으로 대한민국을 바꾼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7월부터 8월까지 청소년·청년, 소위 MZ세대를 대상으로 공공문제 해결에 대한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했다. 공모전은 청소년과 청년의 눈높이에서 바라본 생활 주변의 불편사항이나 사회문제를 함께 고민해 보는 기회를 제공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국민생각함을 통해 개최된 이번 공모전은 다양한 사회 구성원이 참여하는 국민 참여 플랫폼 운용의 기반을 조성하였다.

주제는 공공분야 내에서 자유롭게 정책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것이었다. 시민들의 활발한 참여로 총 384건의 정책 아이디어가 접수되었으며,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내·외부 심사위원단 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작을 선정했다.

심사 결과, 1등은 “일회용기 올바른 분리배출 확산을 위해 소비자가 배달음식 용기를 깨끗이 세척한 사진을 공공 배달 앱에 등록하면 포인트를 지급하는 환경 후기(리뷰) 서비스를 도입하자”라는 아이디어를 제안한 대학생 김윤희 씨가 선정됐다. 코로나 19로 급증한 배달음식 이용량에 덩달아 증가한 일회용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고자 제안한 아이디어다.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공공 배달 어플리케이션에 ‘친환경 후기’란을 만들고, 인증샷을 남긴 소비자에게는 친환경 포인트를 지급하는 방안이다. 김윤희 씨는 “평소에 환경오염에 관심이 많아서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하게 되었다”며 “선정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지만, 많은 분들이 환경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계셔서 선정된 것 같다”는 수상 소감을 전했다.



2등은 “학교 도서관에 필요한 책이 없으면 동네서점에서 직접 구매해 읽고 학교에 책을 제공하면 도서구입비를 지원해주는 환급(페이백) 서비스를 도입하자”라는 송정여자중학교 ‘토람이들’팀의 아이디어였다. 해당 아이디어는 상권이 침체되어가는 동네서점에서 책을 구입한 뒤 학교에 제출하면 다 읽은 책을 학교 도서관에 비치하자는 아이디어다. 토람이팀의 이서빈 씨는 “도서 동아리 활동 중, 학생들

이 학교 도서관을 잘 이용하지 않는 점과 동네 서점이 점점 사라지는 현상을 해결하고 싶었다"며 "처음에는 중학생인 우리가 과연 정책을 제시해도 되는 것일지 의심이 들었지만, 이렇게 2등으로 선정이 되니 청소년들도 국가정책에 참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고 전했다.

3등은 "기간제 교사 경력 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하도록 종합교육행정정보시스템인 나이스(NEIS)를 이용하자"는 아이디어를 제시한 직장인 박기성 씨와 "지방 버스정류장은 이용하는 사람이 적고 밤에는 어두워 운전자가 손님이 대기하고 있는지 확인하기가 어려우므로 사람이 있으면 자동으로 켜지는 센서등을 설치하자"라는 아이디어의 직장인 고나연씨가 선정됐다.

행사에 참가한 고나연 씨는 "지방에서 생활하며 겪었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아이디어를 내게 되었다"며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정책개선이 활발히 일어나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다"고 소감을 전했다.

선정된 아이디어는 관련 규정과 제반 법령 등을 검토하고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제도개선 및 정책반영이 추진될 예정이다. 시상식에 참여한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의 정책 건의를 수용하고자 한다며 국민권익위원회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전현희 위원장은 "이번 국민생각함 공모전을 통해 청소년 · 청년의 눈높이에서 바라본 생활 주변의 불편사항이나 사회문제를 함께 고민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며

선정된 아이디어는 관련 규정 및 제반 법령 등을 검토하여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제도개선 및 정책반영이 추진될 예정이다.

"국민생각함을 보다 다양한 계층의 국민과 소통하는 창구로 활용해 국민권익 증진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국민생각함 우수 국민패널 시상도 함께 열려

이날 시상식에는 국민생각함 우수 국민패널로 선정된 3명에 대한 시상도 같이 진행했다. 국민생각함이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정책소통공간으로,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설문조사의 신뢰성, 공정성 등을 높이기 위해 국민패널을 구성해 운영 중이다.

국민패널은 10월 말 기준 총 8,481명이며 이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방역체계 개편, 개 식용 문제 등 6회에 걸쳐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우수 국민패널로는 김기홍, 원선영, 고승희 씨가 선정되었다.

김기홍 씨는 "도시화가 점점 심해져 점차 소통하지 않는 경향이 커져가는데, 국민생각함이라는 창구를 통해 의견을 이야기하는 창이 생겨서 좋다"며 "현대 사회의 기술을 충분히 이용하는 국민생각함이 더욱 발전했으면 한다"는 소감을 전했다. 또한 원선영 씨는 "평소에 국민생각함을 많이 이용하여 내 의견을 내려 한다"며 "하지만 다른 분들이 그것을 보고 계실지는 몰랐다. 앞으로 더 주의해서 세심한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해야겠다"고 밝혔다.

세계 반부패의 날(12. 9.) 맞이해

국민이 참여하는 다양한 청렴 문화행사 열려

국민권익위원회는 우리사회 다양한 곳의 부정부패를 끊고, 청렴한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 1년간 국민권익위원회가 진행해 온 '반부패·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행사들을 살펴보자.

Writer. 편집실

International Anti-Corruption Day

국민권익위는 세계 반부패의 날(12.9)을 맞이하여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청렴·공정 토크콘서트'를 개최하였다.

청탁금지법 시행 5주년을 맞아 지난 5년간의 제도 운영성과를 확인하고 향후 제도 운영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청탁금지법 시행 5년의 성과와 과제'라는 주제로 공개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유엔이 정한 세계 반부패의 날, 12월 9일

'세계 반부패의 날'은 유엔이 2003년 12월 9일 멕시코 메리다(Merida)에서 유엔 반부패 협약 조인식 개최를 기념해 지정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매년 세계 반부패의 날을 전후해 반부패 주간으로 설정하고 반부패·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해 왔다.

국민권익위는 올해 8일부터 10일까지 반부패 주간으로 설정하고 '청렴·공정 토크콘서트', '청탁금지법 시행 5주년 기념토론회' 등 국민이 참여하는 다양한 청렴 문화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청렴 문화행사는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대부분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반부패주간 행사 누리집(http://www.acrcweek.kr)을 통해 생중계되었다.

세상을 바꾼 공익신고자, 그 후

국민권익위는 2018년 공익신고의 중요성을 알리고 그 의미를 기리기 위해 매년 12월 9일을 '공익신고의 날'로 지정했다. 유엔 '세계 반부패의 날'과 동일하다. 올해 국민권익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10주년 및 제3회 공익신고의 날을 맞이하여, '세상을 바꾼 10대 공익신고'의 신고자

인터뷰 등을 진행했다. 더 큰 사회적 비용 절감을 위한 공익신고의 필요성, 고소·고발당한 신고자에 대한 적극적 보호 필요성 등 공익신고의 가치와 신고 전후 느꼈던 소회에 대한 이야기가 논의되었다.

목록

세상을 바꾼 10대 공익신고

1. B형 간염 수혈감염 의혹 신고(2011)
2. 제주 세계 7대 경관 투표 관련 신고(2012)
3. 제약회사의 리베이트 행위 신고(2014)
4. 자동차 결함 은폐 의혹 신고(2016)
5. 불량 밀가루 사용 식품제조 행위 신고(2016)
6. 무허가 금융투자업을 통한 유사수신 행위 신고(2017)
7. 불량 콘크리트 제조·납품 신고(2019)
8. 단체 채팅방을 통한 음란동영상 유포 신고(2019)
9. 나눔의집 운영진의 후원금·보조금 관리 부적정 신고(2020)
10. 화학물질 무단방류 신고(2020)

2021 국민참여 청렴콘텐츠 공모전 시상식 열려

그 밖에도 10일에는 국민권익위 유튜브 채널 「권익비전」을 통해 '2021 국민참여 청렴콘텐츠 공모전 시상식'이 열렸다. 국민권익위는 올해 6월부터 10월까지 약 4개월 간 '21세기 금도끼, 은도끼 청렴주인공을 찾습니다'를 주제로 수필, 시, 웹툰·포스터·일러스트, 영상, 노래 등 5개 분야의 청렴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했다. 이번 공모전에는 역대 가장 많은 2,570편의 작품이 접수되었고, 공직자뿐만 아니라 일반국민의 참여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민권익위는 유튜브 채널 「권익비전」 및 청렴콘텐츠 공모전 공식 누리집에 입상작들을 게시해 국민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고, 각급 공공기관과 학교 등의 청렴교육 자료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코로나19 방역지침을 고려하여 2021 국민참여 청렴콘텐츠 공모전 시상식은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수상내역

수필분야

대상
홍유기(강남구청)
<약자에게 강했던 허물을 벗어버리다>
최우수상
정다혜(서울경운학교)
<수박이 너무 달아서>,
김화순 <청렴과 결백의 전이>

시 분야

대상
이상윤
<물에 관한 명상>
최우수상
석지영(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충북도본부)
<반딧불이>,
김형식 <지붕론>

웹툰, 포스터, 일러스트 분야

대상
홍지현
<올바른 마음>
최우수상
이해걸(연제구청) <연줄을 끊으세요>,
고병곤(한국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
<일급수달>

영상 분야

대상
청렴아코이카GO(한국국제협력단)
<선배님이 수상해요>
최우수상
국민체육진흥공단
<니가 한 일을 알고 있다>,
한국우편사업진흥원 <오피스 청렴>

노래 분야

대상 박하선 <내 마음속의 CCTV>
최우수상 최백규((주)SR) <달라질까?>, joon&taylor(오태석, 채영준) <CLEAN DAY>

❶ 공익신고자 보호 더 두터워진다!

공익신고로 인한 모든 쟁송절차의 소요비용 지원

개정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지난 10월 21일부터 시행됐다. 공익신고자는 신고로 인해 임금 등 경제적 피해를 받거나 이사·치료비용, 쟁송비용 등을 지출한 경우 국민권익위에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쟁송비용의 경우 기존에는 해고, 징계 등 불이익조치로부터 원상회복을 위한 쟁송절차 소요비용에 대해서만 신청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공익신고로 인한 모든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공익신고자가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 등으로 민·형사소송을 당해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한 경우에도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특히, 개정 법령 시행일 이전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도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어 공익신고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시 기존에는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의 판결'이 있어야 했으나, 앞으로는 판결 없이 공익신고로 인한 환수처분만 있어도 보상금 지급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병원이 건강검진 비용을 부당 수령하여 지자체가 검진비용 지원분을 환수하는 경우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와 함께, 공익신고 보상금 신청기간이 국가 지자체의 수입 회복 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됐음을 안 날로부터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됐다. 단, 보상금 관련 개정사항은 법령 시행일인 10월 21일 이후에 한 공익신고부터 적용된다.

자세히 알아보기
보호보상정책과 044-200-7753

❷ 청탁금지법·공공재정환수법 개정

청탁금지법 개정안, 공공재정환수법 개정안이 지난 11월 11일 국회 본회의를 각 통과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통해 공직자의 생활 속 규범으로 정착돼 가고 있는 청탁금지법의 규범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공공재정 부정이익 혐의가 인정될 경우 행정청에 수사결과를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재정환수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공공재정 부정청구 환수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청탁금지법 개정안 주요내용

앞으로 견습생·장학생 선발, 논문심사, 학위수여 등과 관련된 직무의 부정청탁 행위가 근절되고, 국민권익위가 비용을 지원하는 변호사로 하여금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를 대리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부정청탁으로 제재할 필요가 있는 업무를 보완하고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자의 보호·보상이 한층 강화된다.

공공재정환수법 개정안 주요내용

앞으로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공공재정 부정청구 혐의가 인정될 경우, 수사기관은 행정청에 수사결과를 의무적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부정수익자가 공공재정 부정청구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부정이익을 환수해야 할 행정청이 이를 알지 못해 환수하지 못하는 사례가 사라질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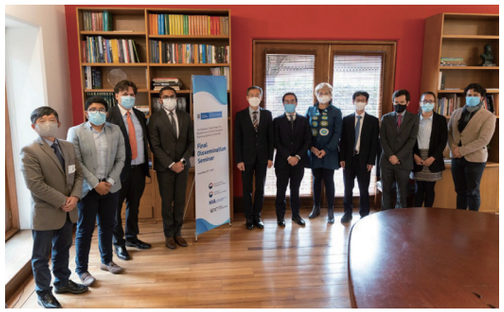
자세히 알아보기
청탁금지제도과 044-200-7703 / 공공재정환수제도과 044-200-7642

❸ 국민생각함 청소년·청년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MZ세대를 대상으로 공공문제 해결에 대한 아이디어 공모전이 진행됐다. 총 384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됐으며 "올바른 분리수거 확산을 위해 소비자가 배달음식 일회용기를 깨끗이 세척한 사진을 공공배달 앱에 등록하면 포인트를 지급하는 환경 후기(리뷰) 서비스를 도입하자"라는 의견이 국민생각함 청소년·청년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1등에 선정됐다. 이번 국민생각함 공모전은 청소년과 청년의 눈높이에서 바라본 생활 주변의 불편사항이나 사회문제를 함께 고민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

자세히 알아보기
국민신문고과 044-200-7274

❹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 시스템 2023년 콜롬비아 정부에 도입 추진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온라인 부패·공익신고 시스템인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가 2023년경 콜롬비아 정부에 도입이 추진돼 반부패 업무 추진에 활용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는 시스템의 구축·운영 경험을 전수하기 위해 올해 6월부터 콜롬비아 맞춤형 신고시스템의 기본 모델을 만들고 타당성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타당성이 인정돼 내년 공적개발원조사업(ODA) 예산을 확보하여 콜롬비아의 반부패 포털 개편 사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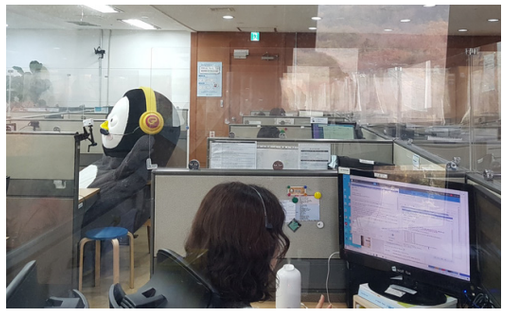
자세히 알아보기
심사기획과 044-200-7689

❺ 방위사업 분야 반부패·청렴문화 확산을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와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 한국방위산업진흥회(이하 방진회)는 지난 11월 25일 방사청 대회의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반부패·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 추진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이번 업무 협약은 정부, 기업, 시민단체 등 사회 전 부문이 힘을 합쳐 국가청렴도 세계 20위권에 진입하고, 청렴한 신뢰에 기반을 둔 K-방산의 세계 진출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자세히 알아보기
청렴정책총괄과 044-200-7618

❻ EBS '펭수', 국민콜110 특별상담사로 변신!



펭수가 국민콜110 특별상담사로 나섰다. 펭수가 국민의 다양한 민원을 상담하며 좌충우돌하는 모습은 지난 11월 26일 오후 7시 35분 EBS1 <자이언트 펭TV>에 방영됐다. 펭수는 국민콜110에서 하루 동안 특별상담사로 근무하며 국민의 민원을 직접 듣고 상담하는 체험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펭수는 불법 주·정차 신고나 다른 기관의 민원처리에 불만을 가진 민원인 항의 등 다양한 민원으로 어려움에 빠졌으나 선배 상담사들의 도움을 받아 해결해 나갔다.

자세히 알아보기
홍보담당관실 044-200-7075
110콜센터 02-2110-65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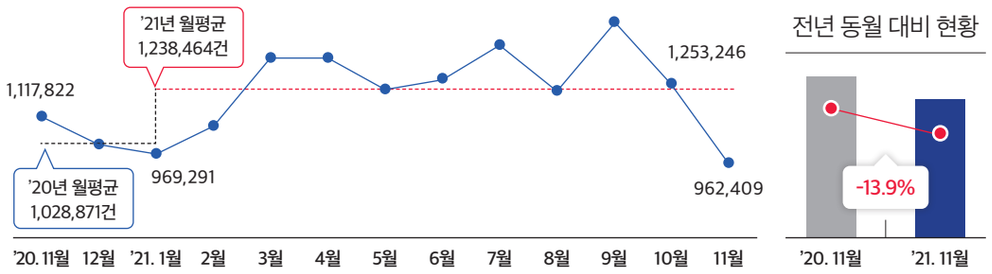
빅데이터로 보는 국민의 소리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들이 느끼는 불편을 이야기할 창구를 만들어 활발한 민원 접수의 장을 만들고 있다. 2021년 겨울호에서는 11월에 발생한 민원 빅데이터를 통해 전국의 민원 동향을 살피며 국민들이 바라는 내일이 무엇인지 알아보았다.

Writer. 편집실

민원 추이

2021년 11월 민원 발생량은 총 **962,409건**
전월(1,253,246건) 대비 **23.2% 감소,**
전년 동월(1,117,822건) 대비 **13.9% 감소**



※ 국민신문고 및 지자체 민원창구(시도포털, 새올) 등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통계('21. 12. 1. 17시)

신청인 현황

연령별로는 **30대**(33.9%) 및 **40대**(26.5%),
성별로는 남성(70.6%)이 다수를 차지
연령 및 성별은 **30대 남성**(26.7%), **40대 남성**(15.7%),
50대 남성(11.7%) 등의 순

※ 연령과 성별이 확인된 277,535건 대상

연령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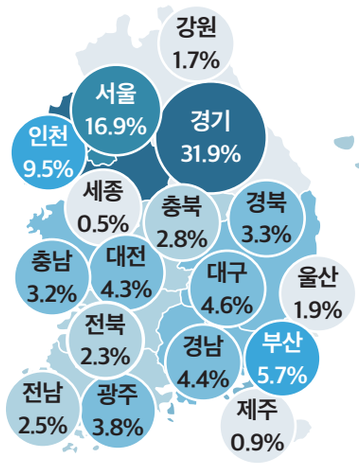
20대 이하	10.4%
30대	33.9%
40대	26.5%
50대	17.7%
60대 이상	11.4%

성별 현황

남성	70.6%
여성	29.4%

지역별 현황

경기 31.9%(270,133건), **서울 16.9%**(142,794건), **인천 9.5%**(80,122건), 부산 5.7%(48,173건), 대구 4.6%(39,393건) 등 순으로 수도권이 전체의 58.2% 차지
서부권광역급행철도(GTX-D) 노선 강남 직결요청 등 **전월 대비 인천이 가장 많이 증가**(46.5%↑), 인천 지역 중에서는 서구에서 발생한 민원이 가장 많음(40,954건)



※ 신청지역이 확인된 847,381건 대상으로, 해당 광역자치단체에서 처리한 민원 통계와는 다름

분야별 현황

분야별로는 **경찰 분야(42.0%)**가 가장 많고 교통(11.8%), 도로(8.1%), 행정안전(5.5%), 환경(4.6%), 주택건축(4.2%), 산업통상(2.9%) 분야 등의 순

경찰	교통	도로	행정안전	환경	주택건축	산업통상	도시	교육
42.0%	11.8%	8.1%	5.5%	4.6%	4.2%	2.9%	2.5%	2.4%
문화	**수자원**	**보건**	**방송통신**	**노동**	**관광**	**해양수산**	**사법**	**과학기술**
2.3%	1.9%	1.9%	1.1%	1.1%	0.9%	0.9%	0.8%	0.8%
재정	**농림축산**	**국방**	**법무**	**체육**	**복지**	**세무**	**우정**	**외무통일**
0.7%	0.7%	0.7%	0.5%	0.5%	0.5%	0.4%	0.3%	0.3%

※ 분야 정보가 확인된 904,917건 대상

증가 서부권광역급행철도 역사 및 노선 확정 요청 등 도시 분야 증가

- **도시** 60.9%↑
- **해양수산** 40.6%↑
- **법무** 27%↑
- **행정안전** 3.2%↑
- **사법** 2.6%↑

감소

- **교육** 88.2%↓
- **재정** 45.9%↓
- **복지** 31.9%↓
- **세무** 27.6%↓
- **수자원** 26.9%↓

민원 키워드

11월 상위 민원키워드는 불법주정차, 장애인 전용구역, 신도시 주민 등 평내호평 하수처리장, 부지 선정, 하수처리 용량, 불명수 유입 등 '**환경시설 설립**' 및 교통 인프라, 광역교통사업 등 '**교통 환경 개선**'과 관련된 민원키워드가 상당수 차지

Top 30 키워드

순위	키워드	순위	키워드	순위	키워드
1	불법주정차	11	호만천 산책로	21	하수처리 용량
2	장애인 전용구역	12	교통법규 위반차량	22	불명수 유입
3	신도시 주민	13	과태료	23	서울 접근성
4	어린이 보호구역	14	인구 유입	24	인천 검단
5	경기도 구리시	15	교통 인프라	25	수도권 서북부지역
6	기지이전 부지	16	사유재산 침해	26	인구 밀집도
7	물류센터 유치	17	주민 동의	27	광역교통사업
8	벌칙규정 강화	18	부지 선정	28	원당지구 인구
9	버스정류소	19	주민 갈등	29	정차역 환승센터
10	평내호평 하수처리장	20	소통 부족	30	복합쇼핑몰

12월의 관심 키워드 : 한파

겨울철 월 평균기온이 가장 큰 폭으로 하강*하고 한파 관련 민원이 급증하는 12월을 맞아 관련 시설물 설치 요청 및 지원제도 문의 등 국민 요청사항에 대한 민원예보 발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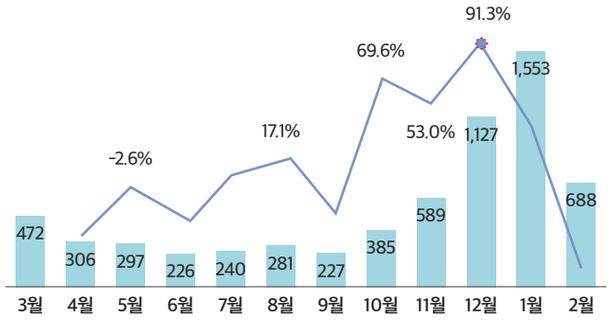
* 최근 3년간('18년~'20년) 겨울철 전월 대비 평균기온은 12월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출처 : 기상청)

민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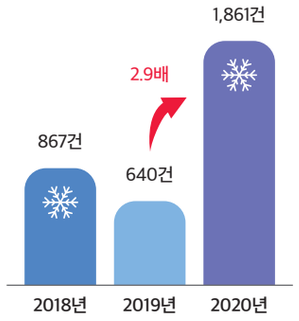
최근 3년간('18.3월~'21.2월)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한파' 관련 민원은 **총 6,392건으로, 12월에 민원이 급증하는 추세**

연도별 겨울철(12월~2월) 민원은 2020년에 전년 대비 2.9배 증가

<3년간 월별 누적 민원 추이 및 증감률>



<겨울철(12월~2월) 민원 추이>



신청인, 신청지역

신청인은 남성(64.1%)이 여성(38.6%)보다 많고 연령별로 30대(34.1%), 40대(27.7%), 20대(16.0%), 50대(14.6%), 60대 이상(6.8%) 등의 순

* '성별 정보 확인 가능 3,603건(전체의 56.4%), 연령 정보 확인 가능 3,571건(전체의 55.9%) 대상

신청지역은 경기(37.4%), 서울(19.3%), 인천(7.3%), 부산·충남(4.2%) 순

* '신청지역 정보 확인 가능 5,291건(전체의 82.8%) 대상, 해당 지자체에서 처리한 민원 통계와는 다름

처리기관

기관유형별로 기초지자체가 49.3%로 가장 많고 중앙행정기관 26.7%, 광역지자체 13.7%, 공공기관 교육청 2.4% 순

민원 사례

[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가림막 등 시설물 설치 요구]

- 버스 정류장에 가림막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한파의 날씨에 버스를 기다리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버스 정류장에 한파 가림막을 설치해 주세요. ('20. 12월, 부산 기장군)

[동파·결빙 피해에 대한 신속한 처리·복구 요청]

- 하루에도 수백 명의 관광객이 사용하는 화장실이 수도관 동파로 인해 냄새가 나고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빨리 조치해 주세요. ('21. 1월, 전남 목포시)

[혹한에 방치된 동물보호 요청]

- 동물들이 한파로 인해 수도관이 터지고 얼음이 가득한 곳에 갇혀 먹이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휴장 중이라는 핑계로 동물들을 돌보지 않는 동물원에 대한 적절한 행정조치와 동물들의 환경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21. 2월, 대구광역시)

[한파 관련 지원제도 등 문의]

- 영하의 추운 날씨에 옥외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에게 넥워머, 귀덮개, 방한장갑 등 방한용품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구매 및 지급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1. 1월, 고용노동부)

언제 어디서든 자유롭게 볼 수 있는 '나만의 스크린'

독특하고 매력적인 캐릭터와 팽팽한 긴장감, 미스터리한 스토리로 전 세계를 강타한 '오징어게임'. 넷플릭스를 통해 올해 9월 방영한 이 시리즈는 TV나 영화관에 볼 수 없는 독보적인 차별성으로 시청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OTT서비스는 2000년대 중반부터 스트리밍 서비스를 시작했지만 국내에서 안방극장을 밀어내고 본격적으로 자리잡은 것은 최근이다. '오징어게임'이 넷플릭스를 비롯한 OTT 열풍을 일으킨 계기가 된 것이다. OTT는 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을 뜻하는 'Over the top'의 약자이다. '기존의 범위를 넘어서다'라는 의미가 담긴 이 용어에서 'top'은 셋톱박스 기반의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를 말하지만, 최근에는 PC와 스마트폰을 통해 제공되는 영상 콘텐츠 서비스를 통칭하는 의미로 사용된다.

OTT 플랫폼의 가장 큰 장점은 시·공간의 제약이 없이 즐길 수 있다는 것이다. TV에서 원하는 프로그램을 보기 위해서는 정해진 방송 시간을 맞춰야 하지만, OTT 플랫폼에서는 시청자가 원하는 시간에 보고 싶은 콘텐츠를 자유롭게 스트리밍하거나 저장해서 즐길 수 있다. 이러한 장점 때문에 지금은 OTT 경쟁이 더 치열해졌다. OTT 시장을 선점한 넷플릭스, 왓챠를 시작으로 티빙, 웨이브, Apple TV, 쿠팡 플레이, 디즈니플러스 등으로 다양해진 것이다.

OTT의 또 다른 장점은 구독과 해지가 자유롭고, '동시 재생 가능 기기수'를 활용해 가족이나 친구, 취향이 비슷한 사람들과 함께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모든 것이 하나로 간편하게 통합되는 시대에 여러 플랫폼으로 유목민처럼 옮겨다니는 번거로움은 OTT 서비스의 단점이다. 소비자들은 모든 OTT 플랫폼 콘텐츠를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통합 플랫폼'이 나오길 바라고 있다.

서로 다른 매력과 장점을 가진 OTT 서비스

OTT 서비스를 구독하고 싶지만 플랫폼마다 매력과 특징이 모두 달라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망설이는 이들이 많다. 하지만 플랫폼별 특징을 안다면 더 효율적으로 즐길 수 있다.

'오징어게임' 신드롬으로 최근 사용자 2억 명을 돌파한 '넷플릭스'는 국내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OTT 플랫폼으로 자리잡았다. '넷플릭스'는 영화와 드라마,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 예능 등 장르가 다양한 것이 장점이다. 특히 <종이의 집>, <킹덤> 등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가 인기가 높다. 모든 언어로 자막을 지원하며 설정·변경·이중 자막 등 자유로운 UI 설정이 가능하다. 하지만 <마블>, <해리포터>, <왕좌의 게임> 등 대중적인 시리즈는 볼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드라마보다 영화를 좋아한다면 '왓챠'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영화와 드라마를 주력 콘텐츠로 큐레이션 시스템을 제공하지만 영화가 더 강점이다. 독립영화와 고전명작을 비롯해 <화양연화>, <중경삼림>등 홍콩영화, 2000년대 드라마와 예능 등 향수를 자극하는 콘텐츠가 많다.

<무한도전>, <1박 2일> 등 인기 지상파 예능과 <허준>,<대장금> 등 예전의 인기 드라마를 선호하는 시청자들은 '웨이브' 서비스를 구독한다. 최근엔 <꼰대인턴>, <검은 태양>으로 인기와 점유률를 동시에 높이고 있다. 'Quick VOD'를 통해 실시간 방송을 시청할 수 있고 지나간 예능 프로그램도 시청이 가능하다. 화질과 해상도, 화면비 등이 다른 OTT에 비해 불편하다는 단점이 있다.

CJ ENM, JTBC, TVN 등 종편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는 '티빙'은 최근 <유미의 세포들>, <이태원 클라쓰>, <여신강림> 등 웹툰을 원작으로 하는 오리지널 콘텐츠가 인기를 끌었다. 흡인력 있는 스토리와 재미가 검증된 프로그램이 많다는 것이 장점이지만, 해외 콘텐츠 서비스가 어려운 것은 단점이다.

<어벤저스>, <라이온 킹>, <겨울왕국>, <심슨>등 다채로운 애니메이션 콘텐츠를 서비스하는 '디즈니플러스'는 OTT 중 가장 최근 국내에 상륙했다. 창의적인 스토리와 영상미가 장점이고 고객층이 넓지만, 장르가 제한적이고 번역 서비스가 불안정한 것이 단점이다.

오리지널 콘텐츠를 고수하는 'Apple TV+'는 최근 공개한 <DR. 브레인>, <더 모닝쇼> 등이 인기를 얻었다. 다양한 콘텐츠들을 '4K HDR화질'로 볼 수 있고 자체 제작한 콘텐츠에 대한 기대가 있어 마니아들이 선호한다. 애플은 막대한 자금력으로 스티븐 스필버그, 나이트 샤말란 등 유명 감독들과 계약해 파급력 있는 콘텐츠를 제작해 서비스할 계획이다.

TIP 연말 추천작

<그 해 우리는>

OTT : 넷플릭스, 웨이브
감독 : 김윤진, 이단
출연 : 최우식, 김다미, 김성철, 노정의

스물아홉이 된 주인공들의 첫사랑 이야기로, 10년 전 스토리는 웹툰으로 공개되는 특이한 형식의 드라마

<언프레임드>

OTT : 왓챠
감독 : 박정민, 손석구, 최희서, 이제훈
출연 : 김담호, 임성재, 박소이, 정해인 등

<언프레임드>는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는 네 명의 배우들이 마음속에 담고 있던 이야기들을 감독이 되어 연출한 작품. <반장선거>, <재방송>, <반디>, <블루 해피니스> 4인 4색의 단편 영화.

<셀링 선셋4>

OTT : 넷플릭스
장르 : 리얼리티 쇼

미국 LA 초호화 부촌 '할리우드 힐스'에서 선셋 스트립 지역의 1위 공인중개사 '오펜하임 그룹'의 얘기를 다룬 프로그램. 각자 이익을 극대화하는 과정을 실감나게 보여준다.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도

시행 100일, 66건 개선 권고

사례로 살펴본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도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도가 시행 100일 맞았다.
그간의 이행실태를 분석한 결과, 총 1115건이 접수되었고 그 중 66건에 개선 권고가 이뤄졌다.
주요 개선 권고 내용은 '법령과 정책 개선 요구', '신속한 조치 요구', '법령의 탄력적 적용 의견' 등이다.
적극행정 국민신청 사례들을 살펴보고 어떻게 이용하면 좋은지 알아보자.

Writer. 편집실

올해 7월부터 시행된 '적극행정 국민신청'은 행정기관에 각종 민원이나 국민제안을 신청했으나 법령이 없거나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거부 또는 불채택 통지를 받은 사람이 해당 업무를 적극 처리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국민권익위는 적극행정 국민신청 이행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7월 27일부터 10월 31일까지 총 307개 기관을 대상으로 법령 및 정책 개선 등 이행결과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올해 7월부터 10월 말까지 총 1,115건을 접수하고 국민권익위가 조사 중인 136건을 제외한 979건을 각 기관에 배정했다.

국민권익위는 국민이 신청한 내용에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66건에 대해 소관 기관에 적극 추진하도록 개선 권고했으며, 이중 13건이 해결됐다. 이를 포함해 적극행정 국민신청으로 신청된 대표적인 사례들을 살펴보자.

(적극행정 11대 사례)

❶ 아동급식제도 사각지대 개선(복지부, 지자체 등)

(상황) 31만 명에 달하는 결식아동을 위한 아동급식 지원 단가가 지역마다 다르고, 아동급식을 제공할 수 있는 가맹점을 쉽게 찾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음

※ 보건복지부 권장 단가는 6,000원이나 이를 준수하는 지자체는 67.6%(155개)로 격차 발생

(적극) 아동급식 지원 최저 단가를 보건복지부가 법령에서 정하고 각 지자체에서는 그에 맞춰 조례를 개정토록 하였으며, 아동급식 카드 가맹점을 확대하고 아이들이 쉽게 식당을 찾을 수 있도록 스마트폰 앱(APP) 서비스를 제공토록 개선 권고

※ ▲급식단가 반영 예정 : '22년 부산시 7,000원, 대구시 8,000원 ▲가맹점 수 : 부산시 3,652곳→50,401곳, 대구시는 BC카드 가맹점 전체로 확대하고 앱 서비스 시행

(효과) 결식 아동들에게 양질의 급식 제공으로 건강하고 안정적인 성장 도모

❷ 보육수당(아동수당 등) 신청기간의 탄력적 운영(보건복지부)

(상황) 부모가 아이 출생신고와 별도로 보육수당 신청을 해야 수당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혜택을 못 받는 사례 빈발

※ 관련 민원 '18년 22건 → '19년 46건 → '20년 50건으로 꾸준히 증가

(적극) 현 60일인 보육수당 신청기간을 연장하고 출생신고와 보육수당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서 양식과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 권고

(효과) 가계의 아동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과 보육환경 개선

❸ 친환경자동차(전기·수소차) 통행료 감면 관련 운행 지원(국토교통부)

(상황) 배출가스 감축과 친환경차 보급·활성화를 위해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전기차는 통행료를 50% 감면하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도로는 감면이 안됨

(적극) 환경 보존을 위한 범정부적 온실가스 감축 실현을 위해 친환경차는 지자체가 관리하는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조치 제안

(효과)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단축과 정부 정책의 일관성 유지로 신뢰성 제고

❹ 중고물품 거래사기 피해구제 및 예방 종합대책 마련(공정위, 경찰청 등)

(상황)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점검과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

(적극) 사기 피해구제와 새로운 중고거래 시장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플랫폼 운영사업자 역할 확대, 분쟁조정 전담창구 신설) 등 종합적 대책 권고

(효과) 온라인 공정거래 질서 확립 및 신규 시장의 활성화로 국민경제 활력 제고

❺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지급기준 개선(환경부)

(상황) 기존 차량(2.8톤, 3,907cc) 보다 새로 구입한 차량(3.1톤, 3,933cc)이 적재량과 배기량이 일부 초과한다는 사유로 조기폐차 지원금 지급을 거부

(적극) 자동차 제작 기술의 개발에 따라 기존 차량의 적재량과 배기량에 맞는 시판 차량이 없는 현실을 반영하여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을 지급토록 권고

(효과) 노후 경유차 감축에 따른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으로 대기환경 개선

❻ 코로나19 방역현장 수기 출입명부 관련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개선(질병관리청)

(상황) 코로나19 수기 출입명부는 4주 경과 후 파쇄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해야 하는데 파쇄방법, 보고 기한 등에 관한 규정의 불명확으로 개인정보 유출 우려

(적극)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괄수거하여 폐기하거나, 구체적인 파쇄방법 및 보고기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토록 권고

(효과) 코로나19 방역현장 수기 출입명부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

❼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의 신속한 지급을 위한 지급기준 개선(중소벤처기업부)

(상황)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 과정에서 국세청 자료 외는 증빙서류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민원이 지속 제기

(적극) 유사한 재난지원금 성격의 고용안정지원금의 경우 개인이 제출하는 소득감소의 증빙서류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지급요건 개선 권고

(효과) 소상공인의 경영난 지원과 정책의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정부 정책 신뢰성 제고

❽ 불필요한 건강보험증 발급 중단 및 건강보험증명서로 대체(보건복지부)

(상황) 요즘 병원에서는 건강보험증 없이도 주민등록증으로도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 일부 약국 등에서 건강보험증 대여 등 부정 사용 실태도 발생

(적극)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에 의한 개인정보침해 방지 및 모바일 시대에 맞게 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해, 종이 건강보험증을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토록 권고

(효과) 국가 의료재정 손실방지, 개인정보침해 예방 및 보험증 이용 효율성 제고

❾ 교통사고 피해방지를 위해 이륜자동차 전면 번호판 부착(국토교통부)

(상황) 배달 및 퀵서비스 활성화 등에 따라 오토바이 등 이륜자동차의 사고나 교통법규 위반이 증가해 시민 안전이 위협 받음

(적극) 이륜자동차의 후면에만 번호판이 부착되어 있어 무인카메라 단속이 곤란한 점 개선 및 시민의 안전을 위해 이륜자동차 전면 번호판 부착 도입 권고

(효과) 이륜자동차 법규위반 감소 및 교통질서 확립으로 시민의 안전 확보

❿ 반려동물 소음 관리안 마련을 통해 사회적 분쟁 해소(환경부, 농림부)

(상황) 반려동물 양육 가구('20년 521만) 증가와 개 짖는 소리로 인한 피해구제 요청에도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법령 및 소관기관 부재

(적극) 소음·진동관리법 소관 환경부와 동물보호법 소관 농림부가 협업을 통해 해결 방안을 강구하도록 권고

(효과) 521만 가구의 반려동물에 의한 사회적 분쟁 방지 및 바람직한 양육 문화 조성

⓫ 태국 재외국민 여권 재발급 어려움 해결(외교부)

(상황) 방역 강화조치로 태국 내 국내선 항공기 운항이 금지 되어, 태국 코사무이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은 어린 두 자녀를 데리고 선박 및 자동차로 15시간 이상 걸리는 방콕 소재 대사관을 방문해 가족의 여권을 재발급 받기에는 현실적으로 힘든 상황

(적극) 여권 재발급에 적극적으로 임해줄 것을 외교부에 요청, 이후 외교부가 태국 코사무이 지역에 순회영사 업무를 실시해 재외국민 여권 재발급 처리

(효과) 코로나19 상황에서 적극행정 실현으로 재외국민의 여권 발급 가능

권익 포커스는 국민의 고충과 불편 해결을 위해 적극행정을 펼치는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의 활약상을 조명합니다. 이번 포커스에서는 가정양육수당 및 아동수당의 소급지원과 시내버스정류소 이전 등 교통안전 대책 추진을 이끌게 된 사례를 소개합니다.

Writer. 편집실

#1

가정양육수당 및 아동수당 소급지원

"아동수당과 양육수당, 60일 이내 신청해야 한다는 내용을 몰랐는데 고지 받지 못해 혜택을 못받는 문제, 해결해주세요!"

무슨 일인가요?

신청인은 2021. 1. 자녀를 출산하고, 2021. 4. 자녀에 대한 아동수당과 양육수당(이하 '이 민원 수당'이라 한다)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자녀 출생 후 60일 이내에 이 민원 수당의 지급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2021년 1월분, 2월분, 3월분 이 민원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서울시, 보건복지부)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하여야 이 민원 수당을 소급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는 내용과 인터넷 신청도 가능하다는 사실을 고지 받지 못했고, 거주지 인근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이 민원 수당을 자녀 출생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신청한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이 민원 수당을 소급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이 민원 수당에 관련한 정보 고지를 받지 못해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해달라고 요청해왔다.

어떻게 해결했나요?

국민권익위는 민원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이 민원 수당 소급 지원 관련 민원이 빈발하고 있고, 향후 유사한 민원이 재발할 수 있다는 점을 파악했다. 이에 피신청인에게 출산 후 60일 이내 신청을 하는 경우에 소급 지원된다는 내용을 포함해 이 민원 수당에 대한 정보 고지를 강화할 방안을 제시했으며 그밖에 자녀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하지 않은 산모 등에 대한 선별적 안내 방안, 일반우편 외에 문자, SNS 등을 통한 고지 방안,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 등을 고려해 출산 후 6개월 이내 신청 시 소급 지원하는 등 기간 연장 방안에 대한 대책을 요청했다. 이에 피신청인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통(2022년 1월) 전까지는 주기적으로 이 민원 수당 관련한 정보 고지를 철저하게 해달라는 공문을 시군구에 시행하기로 했다.

결과적으로 신청인의 이 민원 수당 소급 지원 요청에 관해 살펴보았을 때 피신청인은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제3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5조의8 등에 따라 신청인의 자녀 출생신고 후 14일 이내에 이 민원 수당 신청과 관련한 정보를 신청인에게 서면(우편) 등의 방법으로 고지하여야 함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는 바, 신청인이 이 민원 수당을 자녀 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지 못한 사정에 피신청인의 책임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이 민원 수당은 자녀를 출산한 부모라면 누구든지 지급 받을 수 있는 것인데, 전염병의 감염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피신청인의 외출 자제 권고를 적극적으로 실천한 신청인에게 원래부터 받을 수 있었던 이 민원 수당을 소급하여 지원 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을 크게 훼손한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킴으로써 아동의 복지 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점,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자녀의 임신 출산 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

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최근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0.84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한 상황임을 인지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신청인에게 이 민원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관련 정책에 반하거나 과도한 지원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한 이 민원 수당을 자녀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시사점

아동수당과 양육수당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는 방안 중의 하나로, 신청인을 비롯해 자녀를 양육하는 국민들에게는 절실하게 필요한 지원이다. 이와 관련해 지원이 미비한 점이 있다면 국민의 입장에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공공기관의 바른 모습으로, 국민권익위는 그 방법을 찾기 위해 힘써 나갈 것이다.

#2

시내버스정류소 이전 등 교통안전 대책 추진

"버스 정류장과 도로가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있는데 개선하지 않는다면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고쳐주세요!"

무슨 일인가요?

'○○중사거리 시내버스정류소'(이하 '이 민원 버스정류소'라 한다)가 위치한 '○○로'는 ○○에서 ○○으로 주행하는 중심도로로 차선폭이 좁아, 시간대별로 시내버스 2대가 한꺼번에 연달아 정차하는 경우 뒤의 버스는 중앙선을 침범해서 지나가야 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했다.

특히 버스정류소가 볼록형 종단곡선도로의 아래 쪽 경사면에 위치하고 있어 차 간 접촉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교통사고 위험이 컸다. 이에 신청인은 버스정류소를 이전하거나 도로와 분리 정차할 수 있는 정류소를 만드는 등 대책을 요구했으나 피신청인이 불가하다고만 하고 있어 국민권익위에 민원 신청하였다.

어떻게 해결했나요?

국민권익위는 현장 실지조사를 진행해 이 민원 버스정류소가 둔덕형태의 볼록형 종단곡선도로의 하강부 경사면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때문에 사거리 언덕을 넘는 차량의 운전자 시야에는 정차된 버스가 잘 보이지 않고, 사거리 언덕과 이 민원 버스정류소 간 거리가 짧아, 경사면(약 25°)을 내려오는 차량이 갑작스럽게 정차된 차량을 발견했을 때 그 차량을 피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교통사고의 위험이 존재한다는 것을 파악했다. 또한 이 민원 버스정류소 앞 차선은 폭이 좁아, 1차선에 정차되어 있는 버스를 앞서 가기 위해서 중앙선을 침범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점도 확인했다.

한편 실지조사에 참석한 조사관은 신청인 및 기관 관계자들과 함께 이 민원 정류소를 이설할 만한 장소를 물색했고 그 결과 ○○중사거리 경사면 오름길 이전에 '이설 가능 장소'가 존재함을 확인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이 민원 정류소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과 피해를 줄이기 위해 피신청인이 주민의견 수렴 등 이 민원 버스정류소 이설을 위한 절차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고, 신청인의 주장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피신청인에게 시내버스정류소 이전 등 교통안전 대책을 추진하도록 의견 표명했다.

시사점

버스정류소, 차도 등의 환경이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구조라면 이를 개선하는 것이 공익을 위한 일일 것이다. 신청인은 빈번한 사고, 정체현상을 겪으면서 해당 지역의 정류소 위치를 바꾸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 생각하고 요구한 것인데, 이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이 이뤄지지 않다고 여겨 민원을 넣게 된 것이다. 실제로 버스정류소의 이전을 위해서는 주민의견 수렴 절차 등이 필요하겠지만, 개별 민원인의 의견에도 우선 귀를 기울이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점을 이 사례에서 살펴볼 수 있다.

권익이,
달라집니다!

- 불합리한 법령과 제도, 개선해 나갑니다
- #3 가정폭력피해자 보호를 위한 주민등록 열람제한 제도개선

많은 사람들이 생활 속에서 불합리한 법령과 제도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사회 전반에서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기준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는 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 또한 불합리한 부분들을 과감하게 개선 요구해 나갈 것입니다.

Writer. 편집실

#1 어떤 문제가 있나요?

남편의 폭력을 피해 자녀와 함께 집을 나온 A씨는 직장 문제로 인해, 자녀를 지인에게 맡겨두었다. 그런데 남편이 자녀의 '아버지'라는 점을 내세워 자녀의 초본을 열람 한 후, 지인을 방문해 협박하는 일이 발생했다. 여기에 한술 더 떠 A씨의 거주지까지 알아내 찾아와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처럼 가정폭력피해자와 피해자 자녀, 부모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는 피해자가 이들에 대한 주민등록 열람 제한을 신청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가정폭력행위자가 폭력적인 환경을 회피한 자녀 또는 부모의 주민등록을 열람한 후, 찾아가 2차 가해하는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따라서 피해자의 주소지 노출에 따른 신변 위험을 우선 고려해, 피해자와 동일 세대를 구성하는 세대원 뿐만 아니라 주소를 달리하는 피해자의 자녀 및 부모에 대해서도 등초본 열람 제한을 신청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2 사실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경찰청이 최근 5년 동안 가정폭력으로 검거된 사건을 분석한 결과, 검거 인원은 약 21만 5천명, 피해자 수는 약 18만 명에 달했다. 매년 약 4만여 건의 가정폭력 사건이 발생하고 가해자 중 79.9%가 남성, 피해자 중 75%가 여성을 나타났다. 특히 여성가족부의 2019년 가정폭력실태조사 연구 결과에 따르면 배우자에 의한 폭력 피해 경험이 다수를 차지했다

한편, 보건복지부의 통계자료에서도 2018년 기준 아동학대 행위자의 76.9%가 부모이며, 아동학대의 약 80%가 가정 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부모	8,207(81.8)	9,348(79.8)	15,048(80.5)	17,177(76.8)	18,920(76.9)
친인척	559(5.6)	562(4.8)	795(4.3)	1,067(4.8)	1,114(4.5)
대리양육자	990(9.9)	1431(12.2)	2,173(11.6)	3,343(14.9)	3,906(15.9)
타인	124(1.2)	187(1.6)	201(1.1)	294(1.3)	360(1.5)
기타	129(1.3)	166(1.4)	454(2.4)	441(2)	304(1.2)
계	**10,027(100)**	**11,715(100)**	**18,700(100)**	**22,367(100)**	**24,604(100)**

* 출처 : 보건복지부(2020. 7.)

한편, 2009년 주민등록표 열람제한 제도 시행 이후 가정폭력 피해자의 주민등록 열람제한 신청 과정에서 지속적인 고충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 가정폭력피해자의 입증서류 제출 곤란, 열람제한 신청권자 및 제한 대상자의 범위 한정, 가정폭력행위자의 자녀 주민등록 관리 문제 등

* 국민신문고 민원 : 2017년 4,657건 -> 2018년 7,927건 -> **2019년 3,442건**

#3 사례들을 살펴봤습니다.

1) 학대 피해아동 보호시설 상담 및 입소아동의 주민등록 열람제한 곤란

쉼터에 입소하는 아동 중에는 고소, 고발 하지 않거나 신고사건화 하지 않는 경우도 많으며, 신고가 되더라도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상당 시간이 소요되는데, 그런 한정된 서류만 인정 한다면 보호시설에 입주한 아동의 신변보호가 어려움 ('16. 5월 국민신문고)

2) 피해자 자녀·부모의 주민등록 열람제한 불가

사례 1) 남편의 가정폭력을 피해 아내와 자녀가 함께 집을 나왔으나 직장 문제로 자녀는 피해자의 여동생(아이의 이모) 집에서 돌봐주고 있었음. 가정폭력 가해자가 직계혈족이라는 이유로 자녀의 주민등록을 조회하여 찾아왔고, 바로 피해자인 아내의 거처도 알아냈음 ('20.8월 권익위 실태조사)

사례 2) 현재 가정폭력피해자는 특정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해 피해자 본인 및 세대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제한을 신청할 수 있으나 피해자의 (비동거) 직계존비속(부모, 자녀 등)은 등, 초본 교부 제한 신청 대상이 아니어서 가정폭력 행위자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없음 ('17. 6월 국민신문고)

3) 가정폭력행위자가 이해관계인임을 내세워 피해자 주민등록 열람

전(前) 남편이 사실혼파기 후 위자료를 달라고 하여 채권·채무관계가 되었고, 피해자가 일정액을 주고 서로 합의를 하였으나 전(前) 남편은 이해관계를 이유로 언제든지 가정폭력 피해자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할 수 있어 위협을 느끼며 살고 있음 ('20. 9월 국민 생각함)

4) 가정폭력행위자의 세대원으로의 전입신고 차단 곤란

현재 별거 상태인 아내(가정폭력가해자)와 그 공범(동거남)은 미성년자 약취죄로 징역 선고를 받은 자들인데, 남편인 친부의 동의도 없이 미성년 자녀의 주소를 가해자 측으로 이전하였음. 실제로 자녀는 친부의 아버지(아이의 할아버지)가 돌봐주고 있었고, 아내와는 여러 소송을 진행 중인데, 아내 측은 엄마라는 이유로 자녀의 전입신고를 하여 민형사상 이득을 취하려는 목적으로 보임 ('20. 4월 국민신문고)

#4 어떻게 개선할까요?

1) 아동폭력피해자 입증서류 확대

주민등록 열람제한 신청을 위한 가정폭력피해자의 입증서류에 학대피해아동 쉼터의 장이 발급한 입소 확인서를 추가하도록 권고하였다. 이는 아동학대피해자의 신변보호를 위한 즉각적인 분리조치 필요 시, 우선 피해자의 주민등록 열람을 일정기간 제한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 위함이다.

2) 직계존비속의 주민등록에 대한 열람제한 신청 허용

피해자와 세대를 달리하는 자녀나 부모에 대해서도 열람제한 신청이 가능하도록 권고했다. 특히 가정폭력 피해로 인해 피해자와 다른 세대로 주민등록을 옮기게 된 자녀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주민등록 열람 제한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미성년 자녀에 대해서는 별도 증빙 없이 같이 열람 제한을 신청하고, 성년 자녀의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

3) 가정폭력행위자인 이해관계인에 대한 주민등록 열람 제한

채권, 채무 등 이해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가정폭력 행위자인 경우 피해자의 주민등록 열람을 제한하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피해자 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주민등록 열람 신청이 가능한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엄격히 적용하고, 금융기관, 법원 등의 서류 외 개인이 제시하는 계약서, 반송우편물 등에 의해 가정폭력 피해자의 주소가 쉽게 공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자녀에 대한 전입신고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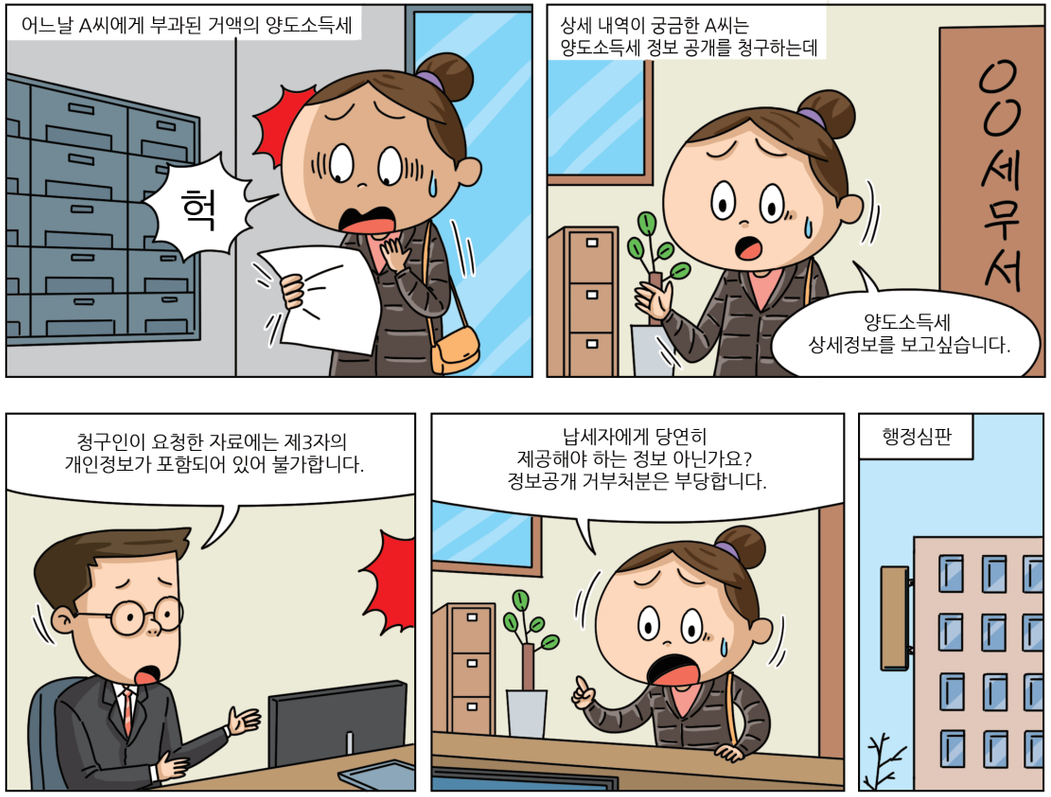
가정폭력 피해자와 자녀가 세대를 달리할 경우에도 가정폭력 행위자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자녀의 전입신고를 할 수 없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친권자라는 이유로 주민등록 담당자가 주민등록 전산정보를 조회하여 가해자의 전입신고를 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지침을 마련하고, 가정폭력으로 주민등록 열람제한 대상이 된 친권자가 자녀의 전입신고서에 불분명한 전(前) 주소지를 기재한 경우 신고서 수리를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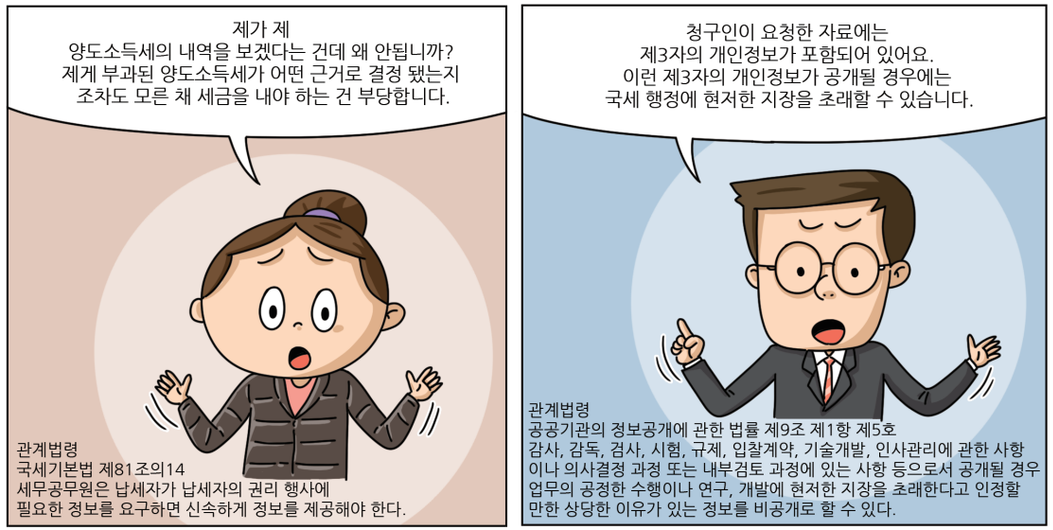
이유도 모른 채 세금을 내라구요!?

행정심판을 통한 권익구제 사례 12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다.
해당 처분 행정청을 관할하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또는 시·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번호에서는 납세자에게 부과된 과세정보를 본인에게 공개하도록 결정한 사례를 통해
행정심판을 통한 국민권익 구제 사례를 살펴본다.**

Writer. 편집실 **illustration.** 이종혁





국민권익위원회 마스코트

“청백이와 권익이”를 소개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귀염둥이 마스코트! 청백이와 권익이를 소개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청렴과 국민권익 보호라는 양날의 칼, 두 얼굴을 가진 기관으로, 단호하고 강한 캐릭터와 따뜻한 수호요정 같은 캐릭터 구현하고자 했는데요. 이에 전 국민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랑스러운 비쥬얼로 구현할 것인가를 오랜 기간 고민하고 수정·보완하여 탄생한 것이 우리 청백이와 권익이입니다.

Writer. 정찬영 **Photo.** 조병우

청백이 권익이의 탄생 스토리를 들려드립니다

때는 바야흐로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국민들의 고충을 해결하는 국민권익위원회는 특유의 딱딱한 이미지를 걷어내고자 귀엽고 깜찍하지만 메시지를 가진 캐릭터를 개발하게 되는데요. ‘국민권익위원회’라는 반부패·청렴 총괄 기관의 이미지와 국민 곁에서 국민의 고충을 듣고 따뜻하게 위로하는 권익보호라는 두 얼굴의 성격을 모두 살리고 싶었습니다. 이에 각각의 이미지를 대변하되, 이 두 역할이 결코 상충하지 않고 조화롭게 어우러질 수 있도록 개성과 시너지 창출이 가능한 캐릭터 개발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그렇게 청백이와 권익이는 2019년 4월부터 11월까지 내부 직원 및 정책고객(권익자문위원, 출입기자 등), 전국민대상 SNS 이벤트 등 총 7차례에 거친 이미지와 네이밍 설문조사와 의견조회 등을 통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설문결과, ‘반부패’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로 ‘암행어사, 박문수’를, 고충이나 행정심판 등 권익 보호의 이미지로는 ‘신문고’, ‘의사봉’ 등이 연상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청백이와 권익이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

권익이는 역사적으로 국민을 보듬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신문고를 형상화하였습니다. 청백이는,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민과 함께 노력하는 당차고 기개 있는 신세대 암행어사로, 부패·불공정으로부터 국민을 수호하는 정의로운 캐릭터입니다. 암행어사의 상징인 마패를 소지하고 있고 부패 앞에서는 단호하고 냉철하지만 평상시에는 정의롭고 친절한 청년으로, 힙한 음악과 댄스 등을 섭렵한 입체적인 캐릭터죠. 권익이는 항상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힘들어하거나 곤경에 빠진 국민이 있을 땐 어디든, 언제든지 달려가는 호민관입니다. 조선 시대 억울한 일을 당한 국민이 임금에게 고하기 위해 두드리는 신문고에서 기원한 캐릭터

죠. 동글동글하고 귀여운 이미지로 언제나 '저를 두드리세요'를 외치며 따뜻한 제스처로 국민을 보듬어 안는 귀염둥이 깜찍이 신문고랍니다. '청백이와 권익이'는 태어난 모든 과정이 국민과의 소통으로 진행되었고 탄생 배경 또한 우리 역사와 문화가 근간이 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의의가 있습니다. 현재 두 마스코트는 각종 반부패·권익 보호 행사·회의 자료 및 온라인콘텐츠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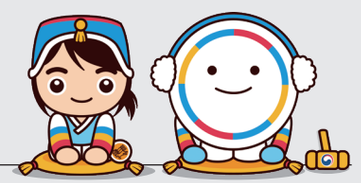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민과 함께 노력하는 당차고 기개 있는 신세대 암행어사. 어사 박문수의 후예답게 불의 앞에선 절대 참지 않는 청백이입니다. 부패·불공정으로부터 국민을 수호하는 정의로운 캐릭터. 청백이는 당당한 기개를 더욱 빛나게 해줄 암행어사의 상징인 마패를 항상 소지하고 있답니다.

공정 청렴

항상 국민의 소리를 듣고 국민과 소통하는 따뜻하고 친근한 국민권익 지킴이.
권익이는 권익이는 국민의 고충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언제든지 달려가는 호민관입니다. 고충과 행정심판을 더욱 공정하게 이끌어줄 의사봉을 항상 소지하고 있답니다.

국민 소통

청백이 권익이, 드디어 만나보았습니다!



Q. 안녕하세요! 이미 유명하지만, 그래도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려요.

청백이 안녕하세요 <국민권익> 소식지 독자 여러분 드디어 찾아뵙게 되었네요! 저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얼굴을 담당하고 있는 청백이입니다. 어사 박문수 선배님의 기개를 본받아 불의에 물러서지 않는 캐릭터가 되고 싶어요.

권익이 안녕하세요! 저는 청백이의 옆에서 따뜻하게 국민 여러분의 고충을 감싸 안아주는 권익이입니다. 살면서 부당하다고 느낀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 권익이를 두드려주세요!

Q. 청백이님은 본인의 기개를 많이 강조하는데, 혹시 최근에 자신의 기개를 보여줬던 사례가 있을까요?

청백이 되게 어려운 질문이네요. 저희가 저희가 포토툰이라고 웹툰이 있는데요. 거기서 제가 권익위원장이 되겠다는 포부를 항상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청백이의 성장 일기에서 위원장이 되는 과정을 그려보았는데, 결국 되지 못한게 많이 아쉽네요.

Q. 혹시 두 분의 라이벌은 누가 있을까요? 펭수를 라이벌로 생각하시나요?

청백이 펭수님은 저의 우상이시죠. 감히 넘볼 수 없는 존재입니다.

권익이 라이벌은 법제처의 세령이에요. 더 유명해서 질투가 많이 나요. 저희보다 몸집이 작아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게 부럽기도 하고요.

Q. 활동을 하면서 언제 가장 뿌듯했는지 궁금해요.

권익이 아무래도 저희 덕분에 자라나는 아이들이 권익위원회에 대한 거부감이 줄어든 게 가장 좋죠. 어릴 때 받은 인상은 평생가니까요.

Q. 권익위원회에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의 포부 한 말씀 부탁드려요.

청백이 앞으로 더 유명해지고 싶어요! 외부 프로그램에 출연도 하고 싶은데, 특히 충주시 유튜브에서 저희를 불러주길 아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때까지 더 노력할게요!

지난밤에 함박눈이 내렸다. 도심에 내리는 눈은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천덕꾸러기 신세지만,
여행지에서 만나는 눈은 다르다. 각박한 삶 속에서 잊고 살았던 유년기의 감성이 깨어난다.
아무 걱정 없던 그때, 눈이 오면 이유도 모른 채 그저 좋기만 했다. 볕이 잘 들기로 유명한
전남 담양에서 눈부신 겨울왕국을 맞았다.

Writer Photo. 임운석(여행작가)

담양 눈길 산책 물과 볕, 푸른 대나무, 그리고 함박눈

1

눈내린 죽녹원, 좀처럼 볼 수 없는 풍경에 사진을 담고 있는 여행자

생명력 넘치는 대나무의 고장, 담양

전남 담양은 대나무의 고장이다. 우리나라에서 죽림 조성에 최적의 자연환경을 갖춘 덕이다. 물과 햇볕이 풍부하고 기온까지 온화하다. 그 덕택에 겨울에 눈이 오면 귀한 손님처럼 대접을 받는다. 사시사철 푸르른 대나무에 소복이 내려앉은 눈은 담양에서 흔한 풍경은 아니다. 그래서 담양에 함박눈이 내리는 날이면 현지인은 물론이고 먼 곳에서도 이 광경을 보기 위해 달려온다.

담양은 대나무의 고장답게 읍내에서 대나무 조형물들을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버스정류장, 가로등, 심지어 간판도 대나무를 이미지화했다. 대나무는 매년 죽순이 나오는데 하루에 최대 1m씩 자랄 만큼 왕성하게 성장한다. 그렇게 약 25일 동안 키를 키운 다음 줄기가 굵어진다. 이 같은 강인한 생명력 덕분에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졌을 때도, 월남전 고엽제 살포에서도 끄떡없이 대나무는 살아남았다.

담양의 대나무숲을 오롯이 느껴보고 싶다면 제일 먼저 방문해야 할 곳이 죽녹원이다. 2003년부터 조성을 시작한 죽녹원은 담양의 스테디셀러 관광지이다. 죽녹원에 함박눈이 내리면 독특한 겨울 풍경이 완성된다. 키를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대나무가 눈을 다 받아내지 못하고 바닥에 떨군다. 하얀 솜사탕에 긴 초록색 빨대를 꽂아놓은 듯 진귀한 광경이다. 몇몇 대나무는 눈의 무게에 못 이겨 활시위처럼 휘기도 한다.

눈 덮인 죽녹원을 걸으며 삼림욕보다 좋다는 음이온 가득한 죽림욕을 즐겨본다. 음이온은 혈액을 맑게 해주고 자율신경계를 조절하여 인체 면역력을 높여준다고 알려져 있다. 게다가 대숲은 바깥 온도보다 4~7도 정도 낮다. 산소발생량이 높기 때문이다. 정수리가 뜨거워지는 여름철에도 이곳만큼은 서늘하다. 그러니 대숲에 내린 눈은 쉬이 녹지 않는다.

죽녹원에는 2.4km의 산책로에 8개의 테마길이 있다. 운수대통길, 사랑이 변치 않는 길, 추억의 샛길, 철학자의 길, 사색의 길, 선비의 길, 죽마고우 길 등 친근한 이름이다.

이국적인 정취가 가득한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2

길을 서로 이어지기 때문에 편의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다. 곳곳에 전망대, 쉼터, 정자, 다양한 조형물을 비롯해 영화나 CF 촬영지를 확인하며 걷는 재미가 있다. 죽녹원과 이어지는 시가문화촌은 가사문학의 산실인 담양의 정자 문화를 볼 수 있도록 꾸며 놓았다.

걷기 좋은 눈길, 담양오방길

담양에는 걷기 좋은 담양 오방길이 있다. 그중에서 '수목길'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하는 전국 10대 이야기가 있는 문화 생태탐방로로 선정됐다. 길은 관방제림부터 메타프로방스까지 이어진다. 관방제림은 관방천을 따라 2km에 이르는 둑길로서 푸조나무, 느티나무, 팽나무가 연이어 이어진다. 보호수로 지정된 177그루의 노거수는 푸근한 할아버지처럼 너른 품으로 맞아준다. 1648년 조선 인조 때 수해를 막기 위해 이곳에 제방을 축조하고 1854년(철종) 나무를 심었다. 지금은 천연기념물 제366호로 지정돼 보호 중이다. 수종은 대부분 활엽수다. 품이 큰 나무는 5m가 넘는다. 곧은 대나무가 강직함의 상징이라면 사방으로 팔을 휘저으며 제멋대로 자란 느티나무는 자유로움을 상징하는 듯하다.

관방제림 노거수에 눈이 내리면 설악산 눈꽃이 부럽지 않은 풍경이 펼쳐진다. 지난밤 내린 눈이 가지마다 내려앉아 눈꽃 터널을 이룬다. 뽀드득뽀드득 눈길을 걷다 보면 바람에 흔들려 떨어지는 눈꽃을 맞기도 한다. 담양은 볕이 좋은 고장이어서 정오가 지나면 눈꽃이 사라질 수 있으니 오전 중에 이곳을 찾는 게 좋다.

관방제림 끝자락에 닿으면 신세계가 이어진다. 이국적인 메타세쿼이아 길이다. 키를 가늠할 수 없는 나무가 열병식을 하듯 늘어서 나무 터널을 이룬다. 차는 물론 자전거도 얼씬할 수 없는 보행자전용길이다. 이렇게 아름다운 길이 보행자만을 위한 길로 남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터. 이 길은 1972년부터 5년간 국도 24호선을 따라 담양군청에서 금성면까지 5km 구간에 1,300그루를 심어 조성했다. 이후 8.5km까지 확장한 결과 국도변 양쪽에 지름만 20m에 달하는 아름드리 메타세쿼이어 가로수길이 만들어졌다. 꿈의 드라이브 코스로도 불리는 이 구간은 자동차로 드라이브만 해도 감탄이 절로 나온다. 그중에서 일부 구간이 한때 고속도로 개발 계획으로 인해 사라질 위험에 처했었다. 이 길을 사랑하는 담양군민의 노력으로 가까스로 지켜낼 수 있었다. 그 결과 한국인이 꼭 한번은 걷고 싶은 길로, 아름다운 숲 전국대회에서 거리 숲

3 새하얀 눈에 뒤덮힌 소쇄원 광풍각

부문 대상을 수상했고, 한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에서 최우수상에 선정됐다.

오방길의 마지막 구간은 패션, 공방, 카페, 펜션 등이 자리한 메타프로방스다. 프랑스의 시골 도시인 프로방스를 콘셉트로 만들어져 이국적인 건축물들과 다양한 문화체험이 가능해 일찌감치 핫 플레이스로 자리매김했다.

가사문학의 산실, 담양의 정자

숲이 있어 쉴만하고, 물이 있어 여유로운 전남 담양. 예부터 풍광이 빼어나 아름다운 정자가 많았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곳으로 소쇄원과 식영정, 독수정을 꼽는다. 대부분 광주호 주변 887번 지방도를 따라 3~4km 반경에 흩어져 있다.

정자 탐방은 식영정에서 출발한다. 조선 명종 때 김성원이 장인 임억령을 위해 지은 정자다. 식영정이란 '그림자가 쉬고 있는 정자'라는 뜻이다. 실제로 정자에서 내려다보는 광주호는 고즈넉하고 여유롭기 그지없다. 송강 정철은 여기서 <성산별곡>과 <식영정 20영> 등을 지었다.

식영정 옆에 한국가사문학관이 있다. 문학관 앞 충효교를 건너면 환벽당이 자리하고 그 이웃에 취가정이 있다.

많은 정자 중에서도 손꼽는 곳은 바로 소쇄원이다. 소쇄원은 양산보가 세속을 떠나 경치 좋은 곳에서 은거하기 위해 지은 별서로 유명하다. 특히 인위적으로 조성한 정원과 달리 인공미를 삼가고 자연미를 최대한 살려 우리나라의 대표적 원림으로 손꼽힌다. 매표소 너머 대숲을 지나면 세상과 단절된 외딴섬과 같은 광풍각이 단아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다. 광풍각이란 '비갠 뒤에 해가 뜨며 부는 청량한 바람'이라는 뜻으로 손님을 위한 사랑방이다. 그 뒤로 제월당이 살짝 비켜섰는데, 이곳은 주인을 위한 집이다. '비 개인 하늘의 상쾌한 달'이라는 멋진 이름이다. 세상을 벗어나 유유자적 행복을 누리고자 한 집주인의 마음이 반영된 듯하다. 광풍각 정자에 앉아 눈 덮인 대숲을 바라보노라면 팬대믹으로 지칠대로 지친 몸과 마음이 제자리를 찾는다.

Tip 여행 정보

- **내비게이션 정보**
  죽녹원 : 담양군 담양읍 죽녹원로 119,
  소쇄원 : (담양군 가사문학면 소쇄원길 17
- **문의**
  죽녹원 061-380-2680, 소쇄원 061-381-0115,
  담당군청 관광정보센터 061-380-28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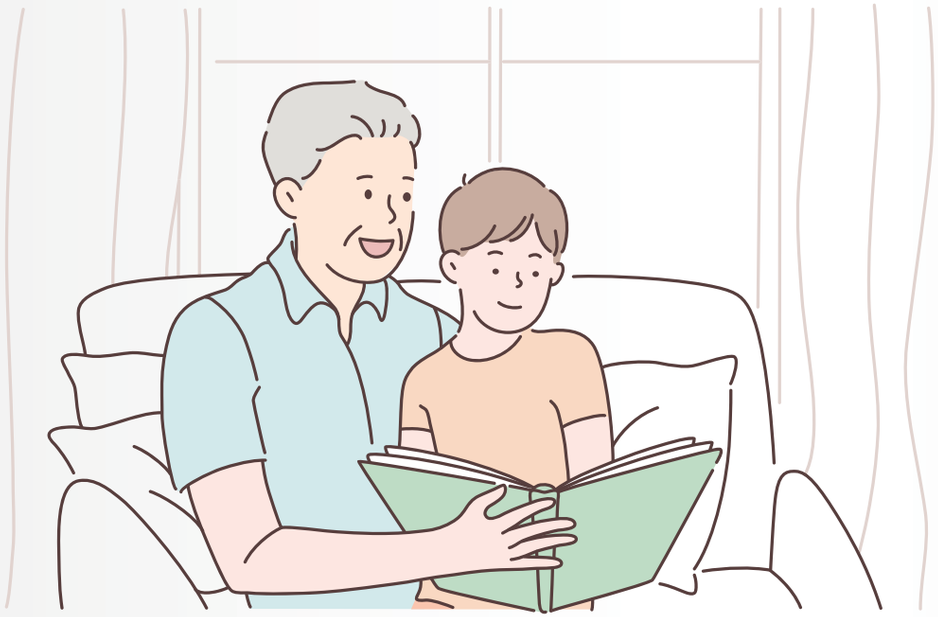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에서 바라본 하늘

4

"정직한 게 오래가는 거데이, 정직한 게 사람을 살리는 기라."

2020 국민참여 청렴콘텐츠 공모전 장려상

Writer. 고창균



"아니, 왜 7,000원을 주는 거지?"

초등학교에 들어가자마자 짝꿍의 금색 샤프펜슬이 부러웠던 나는 매번 하굣길에 문방구점에 들러 주인 할머니께 이미 수차례 물어본 금색 샤프펜슬의 가격을 몇 번이나 되묻곤 했다. 몇 번이나 되물어도 주인 할머니는 싫은 내색 없이 7,000원이라고 말해주며 도리어 옆에 있던 알사탕을 하나씩 쥐여 주셨다. 한 달 용돈이 5,000원이었던 나에게 7,000원이란 가격은 너무 부담스러워, 금색 샤프펜슬 옆에 있던 검은색 투박한 샤프펜슬에 한동안 만족하고 살아야 했다.

그러다 설날 연휴 때 할머니가 주신 만 원을 들고 기어코 금색 샤프펜슬을 사기 위해 문방구점으로 향했고, 꼬깃꼬깃하게 접힌 만 원과 금색 샤프펜슬 상자를 드디어 맞바꾸었다. 그리고 거스름돈을 받아 나왔는데, 무심코 손바닥을 펼쳐보니 3,000원이어야 하는 거스름돈이 7,000원이었다. 이미 문방구점 문을 닫고 나왔고 이대로 집으로 향하면 주인 할머니는 모르실 상황이었다. 주인 할머니가 주시던 알사탕을 떠올리면 다시 문을 열고 들어가야 했지만, 한 달 용돈 5,000원이었던 나에게 그 상황은 너무나 달콤한 유혹이었다. 결국 나는 문을 열고 다시 들어가지 못했고, 다시는 주인 할머니가 쥐여주는 알사탕을 맛보지 못했다. 국민학교가 초등학교로 바뀐 이후에 다시 그 문방구 점 앞을 지나갔지만, 주인 할머니가 늘 앉아 계시던 쪽을 차마 쳐다보지 못했다. 꽤 오랫동안 마음이 무거웠고, 이 무거움이 바로 양심과 청렴의 무게라는 것을 나이가 들어 서야 알게 되었다.

거스름돈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 한순간에 양심을 저버렸던 여덟 살의 '나'와 달리 나의 부모님은 늘 정직을 철칙으로 알고 평생을 살아오셨다. 특히 아버지는 40년이라는 시간동안 한 직장에서만 근무하셨는데, 그래서인지 주위에 사람들이 참 많으셨다. 그리고 오랫동

안 자재 담당 부서에서 근무하셔서, 자기네 물건을 써 달라고 부탁하려는 삼촌들이 집으로 자주 찾아왔던 기억이 난다. 삼촌들은 항상 손에 무언가를 들고 오셨는데 아버지는 그것들을 절대 집으로 들인 적이 없었다. 삼촌들의 손에 들린 물건이 '○○제과 종합선물세트'였을 때는 어린 마음에 아버지께 조르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았지만, 차마 말을 꺼낼 수가 없었다.

대신 아버지는 삼촌들의 손을 이끌고 나가면서 "마, 이런거 고마 갖고온나. 갖고와도 나는 못 받는데이. 집에 느그 아나 갖다 주라. 소주나 한 고뿌 하고 가라"라고 하셨고, 그런 날마다 아버지는 술에 거나하게 취하셔서 웃음 섞인 목소리로 나에게 술주정을 부리셨다.

"마, 내가 가진 건 없어도 자존심도 없나. 없이 살아도 사람이 욕심을 내면 안 되는 기라. 니도 똑똑히 들으래이. 정직한 게 오래가는 거데이. 정직한 게 사람을 남기는 기라. 알아듣겄나?"

그땐 아버지의 술주정이 싫다는 마음뿐이었지만, 아버지의 웃음이 바로 정직과 정의의 대가(代價)였다는 것을 나이가 들어서야 알게 되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삼촌들의 손에 들려 있던 물건들을 되돌려보내는 아버지를 만류하지 않은 어머니 덕분이란 것도 알게 되었다. 어머니는 없이 사는 살림이었지만 쪼개고 또 쪼개어 정말 알뜰히도 살림을 꾸리셨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머니는 스승의 날이 될 때마다 담임선생님 선물로 양말 세 켤레가 가지런히 포장된 선물 박스를 내 손에 들려 보내셨다. 그리고 선물 박스 안에는 늘 흰색 봉투도 함께 있었는데, 그 속엔 장문의 편지가 들어 있었다. 물론 처음에는 무슨 내용인지 도무지 알 수 없었지만, 한글을 완전히 깨우친 후에 어머니의 어깨 너머로 본 편지에는 아들을 많이 꾸짖어 달라는, 버릇이 없거나 잘못을 했을 때는 따끔하게 혼내 달라는 내용이 있었다. 우리 아들을 잘 봐달라는 말은 한 줄도 없었다.

아버지, 어머니께서 삶으로 보여 주셨던 가치대로 나는 정직하고 우직하게 노력을 했고, 다행히 부모님의 바람대로 고등학교 선생님이 되었다. 그리고 신명나게 학교생활을 했으며, 아이들 앞에 늘 당당한 선생님이 되기 위해 노력했다. 특히 처음으로 담임 교사를 맡았을 때는 정말 아이들 한 명 한 명에게 제2의 부모가 된 것처럼 생활했는데, 어느 날 한 남학생이 우리 반으로 전학을 왔다.

우리는 살면서 너무나도 기본적인 부분들을 지나치고 간다. 어떤 곳에서는 청렴함이 필수적으로, 강박적으로라도 요구되어야 한다. 학교는 아이들의 영혼을 키우는 곳이다.

며칠 후 그 아이의 아버지와 상담을 했는데 상담을 끝내고 나서 보니 그 아버지가 앉았던 자리 옆에 무거운 나무 상자와 흰 봉투가 담긴 종이가방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 또한 그 나무 상자가 '○○년산'이라는 수식어가 붙은 위스키 상자라는 것과 그 흰 봉투가 나의 어머니께서 양말 박스 안에 넣어 보내시던 손편지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초임 교사로서 처음 맞닥뜨린 상황이 너무나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동시에 어릴 적 문방구점에서 있었던 달콤한 유혹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주인 할머니가 주시던 알사탕을 또 다시 배반할 수는 없어 아무런 망설임 없이 곧바로 주차장으로 달려

나갔다. 하지만 그 아버지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고, 전화상으로만 지루한 실랑이가 계속 되었다. 선물을 주고말겠다는 의지를 가진 사람은 그 뜻을 쉽게 굽히지 않는 법이다. 하지만 꽤 오랜 시간 동안의 실랑이 끝에 다음 날 그 아버지께서 다시 학교로 오셨고 그제야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내 뜻을 받아들이셨다.

다시는 국민학교 앞 문방구점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던 예전과 달리, 아이들 앞에서 당당한 태도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어 너무나 다행이었다. 한편으로는 이 경험을 통해 나에게 무언가를 부탁할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조그마한 것이라도 놓고 갔을 때는 그것을 돌려주는 것이 더 어려우므로, 애당초 빈손으로 오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하여 부모님들이 상담을 요청할 때는 갈등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많은 사람에게 개방된 장소에서 이야기를 진행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했다.

"마음은 한 아름, 양손은 가볍게!"

아이들을 통해 담임 교사의 의사를 단호하고 분명하게 전달하고 나니, 대부분의 부모님이 나의 방침에 따라 주셨다. 대신에 나는 신학기만 되면 "마음은 한 아름, 양손은 가볍게!"를 수없이 외쳐야만 했다. 그러다가 2016년 9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 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이 시행되기 시작했고 나는 더 이상 "마음은 한 아름, 양손은 가볍게!"를 외칠 필요가 없게 되었다.

물론 부정청탁금지법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약간의 혼란과 상처가 있기도 했다. 모든 교사가 그동안 부정청탁을 받아 왔다는 것을 전제로 한 듯한 느낌이 들어 약간의 상처가 되기도 했고, 아이들이 주는 캔커피 하나, 사탕 하나까지도 자기 검열해야 한다는 점이 너무나 삭막하다는 생각도 들었다. 나의 어머니께서 내 손에 들려 보내시던 양말 세 켤레마저도 부정청탁의 허울을 덮어써야 하는지 의문이 들었다. 결론은 어머니께서 양말 세 켤레에 실어 보낸 마음은 순수한 의미였더라도 상대방은 다르게 받아들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회 통념상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선물일지라도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부탁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상대방에게는 그 성의가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것이 캔커피 정도의 아주 사소한 것일지라도, 추후 내적갈등의 상황에 처한다면 상대방은 그 캔커피의 기억을 저버릴 수 없는 것이다. 최소한 교육현장에서는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선물은 존재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분명하다.

부정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4년이 흐른 지금, 교육현장은 많은 것이 변화했다. 이제 더 이상 학기 초마다 담임 교사가 "마음은 한 아름, 양손은 가볍게!"를 외칠 필요가 없을 정도로, 학부모들은 따뜻한 마음만 갖고 학교에 찾아오신다. 아이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굳이 캔커피나 꽃 한 송이가 없더라도, 서로의 마음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다. 아이들과 주고받은 편지는 몇 년이 흐르더라도 서랍 속 상자에 고이 보관할 정도로, 글로 전한 마음은 상대방에게 향기로 남는 법이다. 꽃 한 송이에 담긴 향기는 꽃이 시들면 그만이지만, 글로 전해진 향기는 마음속에 오랫동안 머물게 되는 것이다. 단, 달라진 점이 있다면 예전에는 화려한 장식이 붙은 편지지였다면, 4년 전부터는 흰 바탕의 복사용지에 더 빼곡하게 마음을 채운다는 차이만 있을 뿐이다. 꽤 오랜만에 서랍을 열고 아이들과 주고받은 편지를 하나하나 다시 읽어 보았다.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이 문득 떠올랐다.

"정직한 게 오래가는 거데이. 정직한 게 사람을 남기는 기라."

국민의 생각이 **정책이 됩니다**

국민생각함 활용 지침 개선 사례

불합리한 채용 **신체검사** 개선 방안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생각함은 누구나 자유롭게 정책 아이디어를 등록하고 건전한 토론과 협업을 통해 더 좋은 정책으로 구현해나가는 온라인 정책소통 플랫폼(www.idea.epeople.go.kr)이다. 이번 호에서는 국민생각함을 통해 실현된 '불합리한 채용 신체검사 개선' 사례를 살펴본다.

추진 배경

'채용 건강진단 제도'는 지금도 관행적으로 '채용 신체검사'란 명목으로 운영돼 경제적 부담과 구직 기회 제한 등 폐단을 보였다. 이에 국가 고용정책인 '균등한 취업기회 보장'과 '비용의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공공부문의 불합리한 '채용 신체검사'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관련 민원사례

△△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때 원서접수 첫 단계부터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를 요구 합니다. 채용 신체검사서도 부담인데, 아직 합격 여부도 결정되지 않은 서류전형에 채용 신체검사를 받아 제출하라는 것 은 불합리함(국민신문고, 2021.2)

□□시 기간제(단기)근로자 채용 시 채용 신체검사서(3개월 이내)를 요구하는데, 합격도 되기 전에 채용 신체검사를 함에 따른 경제적·시간적 부담이 많음(국민신문고, 2020.7)

관련 설문조사

설문제목 : 부담되는 채용 신체검사, 건강검진결과로 대체할 수 없나요?

설문기간 : '21.6.7(월).~6.20.(14일)

설문참여 : 총794명(조회: 3,794명)

이 문제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생각을 들었습니다.

채용기관이 구직자에게
'채용 신체검사서 요구'하는 것은

71.7% 문제 있다

문제 있다고 답변한
가장 큰 이유는

44.2% 비용과 시간의 부담

'채용 신체검사를 건강검진 결과로 대체' 하는 것은

90.4% 찬성

채용기관이 구직자에게 '채용 신체검사서'를 요구하는 것은 문제 있다는 의견이 다수였으며, 설문 참여자의 44%가 비용과 시간이 문제라는데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또한 건강검진 결과로 얼마든지 대체할 수 있다는 인식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제도의 개선

1. 채용 신체검사 비용 구직자 부담 금지

직무 수행에 신체검사가 꼭 필요한 경우 '대상 직종, 필요 검사 항목, 검사 결과 부적합자의 구제방안' 등을 마련해야 합니다. 단, 사무직 등 근로자의 신체적 조건이 직무 수행에 꼭 필요하지 않은 경우 신체검사 최소화 및 검사결과의 채용여부는 반영 금지를 권고합니다.

2. 기간제교원 채용 신체검사 면제 규정 마련

「공무원임용시험령」을 준용, 퇴직한 기간제교원을 퇴직일(계약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간제교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채용 신체검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합니다.

3.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준용 금지

일반 채용 신체검사서와 달리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는 '합격/불합격' 판정이 있는 바, 이를 비공무원 근로자 채용에 과도하게 준용 하여 채용 결격사유로 적용하는 관행을 개선해야 합니다.

4. 건강검진 결과 적극 활용

해당 직무상 특정 신체검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사무직 등)는 가능한 채용 신체검사를 건강검진 결과로 대체 할 수 있도록 하여 관련 사회적 비용절감 및 구직자 편의를 도모해야 합니다.

독자의 소리

지난 2021년
<여름호>를 읽고
보내주신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입니다.

김윤정(경상북도 문경시)
급식의 사각지대에서도 당당하고 맛있는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착한음식점 덕분에 아이들이 균형 있는 식사를 할 수 있게 되어 다행입니다.

이정숙(서울특별시 관악구)
국민의 고충과 불편을 해결한 <권익포커스> 코너가 기억에 남습니다. 문화재와 교통환경 문제를 조화롭게 해결해 인상깊었습니다.

강영숙(인천광역시 부평구)
지난봄에 가족들과 양양 주전골을 방문했었는데, <국민권익> 가을호를 통해 여행지에 대한 설렘을 다시 느낄 수 있었어요.

심재호(울산광역시 북구)
코로나19가 장기화되어 이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가 되었는데, '일회용 마스크 친환경 사용 및 처리' 개선 사례가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김유미(경기도 평택시)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및 소극행정 재신고제 시행을 환영합니다. 많은 국민이 이 좋은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알려주세요.

권익위 열독왕

<국민권익>을
꼼꼼히 읽고 문제를
풀어보세요.

QUIZ.

○월 ○일은 '세계 반부패의 날'로 유엔이 2003년 멕시코 메리다에서 유엔 반부패 협약 조인식 개최를 기념해 지정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매년 이 날을 전후해 반부패 주간으로 설정하고 반부패·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

지난호 정답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정답자	김혜선(부산광역시 사하구)	손의경(전라북도 익산시)
	조영민(경기도 의정부시)	박경한(서울특별시 도봉구)
	장효선(서울특별시 은평구)	

<국민권익>을 읽고 소감과 의견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모두 열 분에게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국민권익>은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이 원하면 정책이 바뀝니다. 국민의 생각을 적극 신청해 주세요!

적극행정 국민신청
소극행정 재신고

국민권익위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하세요!

적극행정 국민신청

적극행정을 요구하는 국민의 소리를 듣겠습니다.

☑ 공익성 민원이나 국민제안이 법령의 불명확 등을 이유로 제대로 처리 안 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극행정 재신고

소극행정을 지적하는 국민의 소리를 다시 한 번 듣겠습니다.

☑ 소극행정 신고 처리에 만족 못 하신다면 재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의 눈높이에서 적극행정을 통한 국민의 권익개선을 위해 앞장섭니다.